

제공일자	2009. 11. 24(화)	담당자	이진면 동향분석실장	
홍보담당	김 세 환 수석(3775-4051)	연락처	3775-4015	총8매

제 목 : 성장모멘텀 부재로 내년 보험산업 회복 제한적

보험연구원은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조선히텔 오키드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진면 동향분석실장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그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도 내수(소비와 투자)의 회복에 기대어 2009년 -0.5%의 감소세에서 2010년 4.1%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점차 상승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기조 지속, 외환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점진적 개선으로 보험산업도 점차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뚜렷한 성장모멘텀의 부재로 FY2009년 2.8%에 이어 FY2010에도 6.8%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은 금융위기로 인한 해약 증대와 변액보험의 침체 지속으로 FY2009에 -2.5%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나, FY2010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변액보험의 완만한 회복, 연금시장의 확대, 보장성 보험의 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3.8%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신계약 급증으로 FY09에는 13.2%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며, FY10에도 계속보험료에 바탕을 둔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유입, 경기회복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요인 등이 작용하여 11.8%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진면 실장은 보험산업이 자생적 성장요인의 부재로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타성적 성장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탈피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와 같은 특정상품 위주의 성장패턴에서 벗어나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리스크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며, 기업경영 차원에서는 고수익 추구보다 리스크 및 자기자본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진단과 전망

□ (실물경제) 2010년 국내경제는 내수회복과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4.1%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

○ 동향 : 2009년 실물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2/4분기까지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보여 성장률이 1/4분기 -4.2%, 2/4분기 -2.2%를 기록한 반면, 3/4분기 들어서는 재정지출의 효과 가시화로 인한 민간소비의 개선,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0.6%의 증가세로 전환됨.

- 고용은 경기회복의 가시화로 실업률이 다소 개선(2009. 1/4 3.8% → 3/4 3.6%)되고는 있지만, 임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확대에 질적인 측면은 악화됨.

○ 전망 : 2009년 경제성장은 상반기 극심했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5%로 예상되는 반면, 2010년에는 부진하던 내수가 회복되고, 신흥개도국 중심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4.1%의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가 자산가치 상승, 경기회복 등으로 3%대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투자비용 하락, 설비개체 등으로 부진을 탈피하면서 기저효과도 작용하여 9%대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공공토목의 증가 지속, 민간건설의 회복 등으로 3%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대외부문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달러약세,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상회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 경기회복세로 고용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예상되나 질적 개선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것임.

□ (금융시장)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금리와 물가의 소폭적 상승 및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예상됨.

○ 동향 : 한미통화스왑, 기준금리 인하, 단기 유동성 지원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향안정세,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의 꾸준한 상승, 자금경색 상황이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전년말 대비 올 11월 5일 기준으로 8% 하락, 주가는 KOSPI 기준 38% 상승, 회사채(3년, AA-)와 국고채(3년)간 스프레드는 431bp에서 112bp로 축소되어 외환□주식□자금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

- 물가는 전반적인 수요 부족과 환율하락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 상쇄 등으로 둔화 추세 (2009. 1/4 3.9% → 3/4 2.0%)
- o 전망 : 경기회복,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국고채(3년)금리의 완만한 상승, 달러화 약세 및 외환 수급여건 개선으로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회복으로 완만한 물가상승이 예상됨.
- 국내외 경기회복, 기준금리 및 물가 인상 가능성으로 국고채(3년)금리가 4.7%로 0.6%p 오를 전망이다 반면, 회사채(3년, AA-)금리는 경기회복과 신용위험 완화에 따라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의 축소가 예상되어 0.2%p 낮아진 5.7%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약세, 외환보유고의 확대, 경상수지의 흑자 폭 누적 등으로 2010년 연평균 1,087 원/달러, 4/4분기 평균 1,053 원/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 내수경기의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0.3%p 오른 3.0%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FY2010 보험산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신계약 유입이 소폭 확대되고 해약이 감소함으로써 생명보험의 부진이 다소 회복되고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FY2009(2.8%)에 비해 개선된 6.8%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 o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FY2007 수입보험료의 99.2%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그침 [FY2007 75.1조원, FY2010 74.5조원]
- o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상GDP 대비 총수입보험료 비중인 보험침투도는 FY2007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FY2007 11.0%, FY2010 10.9%]
- (생명보험) FY2010 생명보험산업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물경기에 후행하는 보험 수요의 특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 모멘텀 부재 등으로 인해 매우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다
- o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FY2008 2/4분기부터 초회보험료가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약률도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는 FY2008 3/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음.
- 그러나 FY2010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초회보험료 규모가 차츰 회복되고, 높은 수준으로 증대된 해약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률은 FY2009 2.5% 감소에 비해 소폭 회복된 3.8%를 보일 전망이다
- o 사망보험 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FY2009 들어 대형사를 중심으로 종신보험 및 통합보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FY2010에는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감소 추이를 보이던 사망보험 초회보험료가 FY2009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었

으나 해약 증대에 따른 계속보험료 축소로 FY2009에는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FY2009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해약이 감소할 경우 FY2010 성장률은 2.6%로 전망

○ 생존/생사혼합/변액 등 저축성·투자형보험은 주가상승 및 경기회복에 힘입어 FY2010에는 4.9% 성장할 전망

- FY2009 들어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변액연금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주가가 상당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축소된 수입보험료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0.9% 감소할 것으로 추정

- FY2010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변액보험 수요도 회복될 것이나 금융위기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해 매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 그칠 것이며 일 반연금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요가 지속될 전망

○ 단체보험은 2010년 말 퇴직보험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퇴직보험 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 될 것이나 전환 비율 및 생명보험산업으로 재유입 여부가 유동적임.

- 퇴직보험 가입 기업의 40% 정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이중 50%가 생명보험회사에 다시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체보험 성장률은 3.5%로 전망

□ (손해보험) FY2010 손해보험산업은 경기회복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요인 및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 : 다른 종목에 비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10 들어 원수보험료는 4.5% 성장하고, 손해율은 경기회복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7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FY2009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효과, 신차·고급차 증가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온라인 시장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FY2010에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정비수가 인상, 보험료 할증 기준 변동 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인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장기손해 : 2009년 10월 실손 의료보험 제도 변경 효과로 FY2009 상반기 신계약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FY10에는 신계약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보유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성장으로 15.5% 전망

- 제도 변경에 따라 실손 보장 한도가 축소(100%→90%)되고, 중복 가입에 대한 사전확인, 고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추가 가입 여력은 저하될 것이나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됨으로써 원수보험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FY2010 손해율은 신계약 유입에 따른 보험료 증대 효과로 77.8%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일반손해 :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 기업의 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 지

속, 정부의 SOC 투자 및 건설경기 회복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화재보험은 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종합 보험화 현상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FY2009 -1.2%, FY2010 -3.9%].
- 해상보험은 FY2009 환율이 전년 대비 하락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나, FY2010에는 환율이 소폭 하락하겠지만 교역량 증대 및 선박 건조량 증가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FY2009 -5.2%, FY2010 7.6%].
- 보증보험의 성장률은 정부의 SOC 투자 확대, 건설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높은 성장세 예상 [FY2009 8.7%, FY2010 10.3%].
- 특종보험은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 확대에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FY2009 14.6%, FY2010 8.9%].

2010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수입보험료(억 원, 성장률)				
- 생명보험	750,956 (13.0%)	735,614 (-2.0%)	717,517 (-2.5%)	745,118 (3.8%)
- 손해보험	339,818 (14.9%)	374,953 (10.3%)	424,454 (13.2%)	474,496 (11.8%)
- 전 체	1,090,774 (13.6%)	1,110,567 (1.8%)	1,141,971 (2.8%)	1,219,614 (6.8%)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7.6	7.2	6.8	6.6
- 손해보험	3.4	3.7	4.0	4.2
- 전 체	11.0	10.9	10.8	10.9
1인당보험료(천 원)				
- 생명보험	1,550	1,513	1,472	1,525
- 손해보험	701	771	871	971
- 전 체	2,251	2,285	2,343	2,495
생존보 구성비(%)				
- 생명보험	68.8	66.2	62.8	61.1
- 손해보험	31.2	33.8	37.2	38.9

주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생존	223,900	24.0	220,147	-1.7	217,242	-1.3	229,685	5.7
	사망	306,813	4.3	304,888	-0.6	298,619	-2.1	306,238	2.6
	생사	148,345	19.4	152,491	2.8	152,050	-0.3	157,874	3.8
	소계	679,058	13.4	677,526	-0.2	667,911	-1.4	693,798	3.9
	단체	71,898	9.7	58,087	-19.2	49,606	-14.6	51,321	3.5
	합계	750,956	13.0	735,614	-2.0	717,517	-2.5	745,118	3.8
손해보험	화재	3,075	-1.8	2,835	-7.8	2,801	-1.2	2,692	-3.9
	해상	6,518	3.1	8,507	20.9	8,065	-5.2	8,678	7.6
	자동차	108,095	12.0	109,371	1.2	110,246	0.8	115,207	4.5
	보증	9,940	-13.0	11,529	16.0	12,532	8.7	13,823	10.3
	특종	28,371	9.9	30,901	8.9	35,413	14.6	38,564	8.9
	장기	163,436	19.5	188,828	15.5	228,983	21.3	264,428	15.5
	개인	9,995	25.3	12,853	28.6	16,670	29.7	21,671	30.0
	퇴직	10,391	32.1	10,129	-2.5	9,744	-3.8	9,432	-3.2
	합계	339,818	14.9	374,953	10.3	424,454	13.2	474,496	11.8

주 : 1)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7	CY2008	CY2009(E)	CY2010(F)
실질GDP	5.1	2.2	-0.5	4.1
(경상GDP)	7.3	5.0	1.2	6.7
민간소비	5.1	0.9	0.1	3.7
설비투자	9.3	-2.0	-9.9	9.4
건설투자	1.4	-2.1	3.6	3.0
총수출	12.6	5.7	-1.2	7.7
(재화수출)	11.9	4.1	-1.1	8.2
총수입	11.7	3.7	-6.6	14.0
(재화수입)	10.9	4.6	-6.5	13.7
경상수지(US\$억)	58.8	-64.1	343.4	144.9
상품수지(US\$억)	281.7	59.9	443.2	338.7
상품수출	3,790.5	4,334.3	3,782.1	4,186.5
(%)	(14.2)	(14.3)	(-12.7)	(10.7)
상품수입	3,508.8	4,274.3	3,338.9	3,847.8
(%)	(15.4)	(21.8)	(-21.9)	(15.2)
고용률	59.8	59.5	58.8	59.3
실업률	3.2	3.2	3.7	3.4
소비자물가(연평균)	2.5	4.7	2.7	3.0
국고채(3년)(연평균)	5.2	5.3	4.1	4.7
원/달러(연평균)	929.2	1,099.5	1,274.9	1,087.3
(4/4분기 평균)	(Q4: 920.6)	(Q4: 1,362.8)	(Q4: 1,155.0)	(Q4: 1,053.0)